

# 1620년대 유럽의 국제정세와 북부 이탈리아

- 그리종(Grisons) 사태와 만토바 계승전쟁을 중심으로 -

임 승 휘\*

1. 들어가며
2. 전쟁인가 평화인가? : 17세기 초의 국제정세
3. 그리종<sup>1)</sup> 주와 발텔리나(Valtellina) 사태
4. 만토바 계승 전쟁
5. 나오며

## 1. 들어가며

1624년 이후부터 1648년 30년 전쟁이 끝나는 시기까지 스위스 동부의 그리종 주와 그 남쪽에 위치한 발텔리나<sup>2)</sup> 협곡, 그리고

---

\* 선문대 역사학과 부교수

- 1) 독일어로 그라우빈덴(Graubünden), 이탈리아어로는 그리조니(Grigioni). 본래 로마 가톨릭 주교가 지배하던 곳으로, 종교개혁 이후 주교의 세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개신교 주민들의 동맹이 형성되었다. 그리종이란 명칭은 이 지역주민들이 회색 옷을 주로 입었던 데서 비롯되었다.
- 2) 롬바르디아 지방에 속한 발텔리나는 이탈리아 북단에 위치하며 스위스 국경에 접해

이탈리아 북부의 만토바-몽페라토(Monferrato)는 프랑스의 부르봉가와 오스트리아/에스파냐의 합스부르크 왕가 모두에게 일종의 뜨거운 감자였다. 발텔리나를 무대로 1624년부터 벌어진 양국의 군사적 갈등은 1626년 3월 초 마드리드에서 체결된 몽종(Monzon) 조약으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지만, 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불과 1년 후, 이 지역은 만토바 공국의 계승 문제로 인해 재차 전쟁의 참화를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유럽의 주요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오늘날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알프스 산악지대에 대한 부르봉과 합스부르크 두 왕가의 관심과 그로 인한 군사적 갈등은 느닷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1618년 발발한 30년 전쟁으로 인해 당시 합스부르크의 신성로마제국은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4세의 독일 침공에 맞서야 했고, 마찬가지로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한 에스파냐는 네덜란드의 독립운동을 저지하는데 골몰해야 했으며, 프랑스는 절대왕권의 확립과 더불어 국내 신교도들의 반란과 영국의 개입이 야기한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내정세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유럽대륙의 양대 세력인 프랑스와 합스부르크 왕가가 발텔리나와 만토바(Mantova)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무엇일까? 15세기 이후 프랑스의 발루아 왕가가 추구해온 이탈리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다시 표출된 것일까, 아니면 군사적 영광을 추구하던 두 왕조 사이에 벌어진 전근대적 성격의 자존심 경쟁인가?

이 시기의 유럽의 전쟁사, 특히 30년 전쟁에 대한 연구들은 이 복잡한 국제적 무력충돌이 단순한 종교적 갈등이나 영토적 야심의

---

있는 지역. 14세기 이후 발텔리나는 밀라노 공국에 속했으나, 1512년 그리종 주에 부속되었다.

차원을 넘어서며 근대적인 국가간체제로의 이행을 담보하는 단계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막상 독일 지역에서 벌어진 무력투쟁들, 예를 들어 덴마크의 군사적 개입과 뒤이은 스웨덴의 침입은 영토적 야심과 왕조적 이해관계의 충돌, 그리고 종교적 갈등이라는 원인을 쉽게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시기의 프랑스와 합스부르크 왕가 사이의 무력충돌 또한 이러한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19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위를 두고 일어난 합스부르크가의 카를 5세와 발루아(Valois) 왕가의 프랑수아 1세의 투쟁도 대립구도 면에서는 1620년대의 투쟁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프랑스와 합스부르크 왕가 사이의 케케묵은 갈등의 불씨가 17세기의 상황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발텔리나와 만토바를 무대로 벌어진 프랑스와 합스부르크 왕가 사이의 외교전과 무력충돌은 단순히 왕조적 야심과 대결이라는 시각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17세기를 장식한 두 세력 간의 전쟁과 외교는 16세기에 벌어진 발루아왕가와 합스부르크 사이의 갈등과는 성격이 사뭇 다를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드리드와 파리는 명확히 국가의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이 전쟁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와 합스부르크 왕국의 재정·군사 국가 형성과정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유럽의 패권 투쟁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17세기 유럽의 복잡한 정세와 이를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중요성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글은 먼저 1620~30년대 유럽의 국제정세의 성격과 프랑스 국제정치적 방향을 둘러싸고 벌어진 조정 내부의 논쟁과 갈등을 살펴보고, 이 논쟁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정치적·외교적 사태, 즉 발텔리나와 만토바를 무대로 벌어진 프랑스

부르봉 왕가와 독일/에스파냐의 합스부르크 왕가 사이의 무력 충돌의 내용과 그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이 전쟁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 2. 전쟁인가 평화인가? : 17세기 초의 국제정세

프랑스의 왕가와 합스부르크(Habsbourg)가의 갈등은 1519년 발루아(Valois) 왕조의 프랑수아 1세와 카를 5세가 서유럽 기독교세계의 최고 직위를 두고 경합했던 황제 선출문제를 발단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1493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에 즉위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막시밀리안 1세(1459~1519)는 부르고뉴의 용담공 샤를(Charles Ier le Téméraire; 1433~1477)의 딸 마리와와 혼인을 통해 부르고뉴를 차지하는 한편, 오스트리아의 옛 영토를 회복하는데 성공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팽창은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되었다. 막시밀리안의 아들 필립은 1496년 카스티야의 여왕 이사벨 1세와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의 딸 후아나와 혼인을 통해 카스티야를 차지했고, 펠리페 1세로 왕위에 올라 이베리아 반도를 통치하게 되었다. 펠리페 1세와 후아나의 사망(1516) 이후 이들의 아들인 카를로스 1세가 에스파냐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로부터 3년 뒤, 카를로스 1세의 조부인 막시밀리안은 손자에게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위를 물려주게 되면서, 카를로스 1세는 에스파냐의 지배자인 동시에 카를 5세(1519~1558)라는 이름으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되어 명실상부 유럽의 가장 강력한 군주로 발돋움했다.<sup>3)</sup> 훗날 카를 5세가

3) 잉글랜드의 헨리 8세의 첫 번째 왕비인 아라곤의 캐서린이 그의 이모이고, 나중에 그의 아들 펠리페 2세와 결혼하게 되는 잉글랜드의 메리 1세는 그의 사촌이다.

동생 페르디난트에게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위를, 아들 펠리페에게 에스파냐 왕위를 물려줌으로써 합스부르크 가문은 표면상 오스트리아 계와 에스파냐계 가문을 분리되었지만, 합스부르크라는 이름은 유럽 최대의 왕실가문으로 부상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sup>4)</sup>

펠리페 2세가 1555년 합스부르크가의 자산을 물려받고 선왕의 이른바 보편왕국을 에스파냐 왕국으로 변화시켰을 때, 두 가문의 갈등은 이제 프랑스-에스파냐의 갈등이란 양상을 띠게 되었다. 카토캄브레지(Cateau-Cambresis) 조약(1559)<sup>5)</sup>과 베르벵(Vervins) 조약(1598)<sup>6)</sup>은 단순한 휴전 협정에 불과했다. 앙리 4세가 암살당하고 루이 13세가 즉위한 후에도 프랑스 왕가와 합스부르크 왕가 사이의 대립구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왕조적 이해관계의 충돌 그리고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그 양상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

루돌프 2세(재위 1576~1612)를 계승한 마티아스(Mathias) 황제가 1619년 사망하고, 보헤미아와 헝가리의 국왕이자 마티아스의 조카인 페르디난트가 1619년 8월 28일 황제로 선출되었다. 페르디난트 1세의 손자인 그는 잉골슈타트 예수회에서 교육을 받은 완고한 가톨릭교도였고, 슈타이어마르크 주의 신교 세력을 붕괴시킨 인물

4) 합스부르크 왕가의 팽창에 관해서는 Jean Bérenger, *Histoire de l'Empire des Habsbourg : 1273-1918*(Paris, Fayard, 1990).

5) 1559년 4월 3일 프랑스의 앙리 2세와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는 프랑스 북동부 노르(Nord) 도에 소재한 작은 마을인 카토캄브레지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양국의 이탈리아 패권전쟁을 종결지었다. 프랑스는 피에몬테와 사보이를 사보이 공작에게 반환했지만, 살로초(Saluzzo)와 칼레(Calais), 메츠(Metz), 툴(Toul), 베르됭(Verdun)을 확보했다. 에스파냐는 프랑슈콩테(Franche-Comté)를 차지하고, 밀라노와 나폴리, 시칠리아, 사르데니아에 대한 직접 지배권을 갖게 되었다.

6) 1598년 5월 2일 앙리 4세는 베르벵에서 에스파냐와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프랑스 종교내전에 개입한 에스파냐와의 전쟁을 종결지었다. 에스파냐는 신교도 출신 국왕인 앙리 4세를 공식 인정하고 프랑스에서 군대를 철수시켰다.

이었다. 그 때문에 보헤미아의 프로테스탄트들은 페르디난트의 황제 즉위 직전 그를 보헤미아의 왕에서 폐위시키고, 대신 영국왕 제임스 1세의 사위이자 신교도인 팔츠(Pfalz) 선제후(選帝侯) 프리드리히 5세를 왕으로 옹립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독일 내부에서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소용돌이치게 한 30년 전쟁의 발단이 되었다. 이 전쟁에서 황제 페르디난트 2세는 교황과 토스카나 대공 그리고 에스파냐 공왕으로부터 자금과 군사를 지원받았다. 1619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된 페르디난트 2세는 내외의 가톨릭 세력의 원조를 얻어 1620년 바이센베르크(Weißenberg)에서 팔츠 선제후를 격파하고, 보헤미아에 대한 합스부르크의 지배권을 재확립하였다. 또한 1625년에는 보헤미아 출신의 유명한 용병대장 발렌슈타인<sup>7)</sup>을 기용하여 덴마크 왕 크리스티안 4세의 침공을 패퇴시키면서 한때 전 독일을 제패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한편 페르디난트 2세는 프랑스 왕에게도 지원을 요청하면서 프랑스의 협조 내지는 중립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했다. 만일 루이 13세가 프랑스의 전통적인 외교 노선에 따라 신교도를 지원하는 경우, 이는 전쟁의 향배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었다.<sup>8)</sup> 하지만 프랑스의 반응은 황제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독일에서 페르디난트 2세의 패권이 확립되는 과정을 주시하면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세력 확대를 우려하고 이에 제동을 걸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1620년대 중반, 리슐리외 추기경이 프랑스 정부의 전면에 등장하면서부터 프랑스는 네덜란드

7) Albrecht Wenzel Eusebius von Wallenstein(1583-1634). 보헤미아의 군인이자 정치가로서, 30년 전쟁기간 중 신성로마제국 황제 페르디난트 2세를 위해 독립적인 황제군을 편성했으며 한때 7만에 달하는 황제군의 총지휘관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훗날 황제가 그에게 등을 돌리자, 반황제 음모를 피하다가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8) E. Lavisse, *Histoire de France depuis les origines jusqu'à la Révolution*, Tome XI, ii, Henri IV et Louis XIII(1598-1643)(Paris, Hachette, 1905), p.210.

와의 동맹을 재개하고 영국 왕실과의 전략적인 혼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종교적 이해관계와는 관계없는 대외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반 합스부르크 정책기조는 1624년 리슐리외 추기경이 국무대신으로 복귀한 이후 프랑스의 대외 정책은 1642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마자랭 추기경의 시대까지 지속되었다. 재상의 위치에 오른 리슐리외는 곧바로 “진정한 프랑스인(Bons Français)” 또는 “국가주의 가톨릭교도(Catholique d'Etat)”의 정치를 대변하는 인물로 간주되었고, 이는 프랑스 궁정 내부에서 벌어진 친 에스파냐적 경건파(parti dévot)와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함축하는 것이기도 했다. 리슐리외의 이러한 반 합스부르크 노선은 국내의 종교적 통일, 즉 프랑스 신교세력의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면서 친 에스파냐적 노선을 추구한 경건파의 반대에 직면해야 했다.<sup>9)</sup> 리슐리외는 자신의 반 에스파냐 정책이 반 가톨릭정책이 아님을 입증해야 했다. 그는 에스파냐가 보편왕국을 꿈꾸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이단과 이슬람 세력과 연합하고 마키아벨리의 가르침대로 종교를 구실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게즈 드 발자크 역시 에스파냐의 이러한 팽창 정책을 비난했다. 그는 위선적인 에스파냐에 맞서 서유럽 기독교 세계를 해방하고 중재하는 역할이야말로 프랑스 왕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sup>10)</sup>

리슐리외의 『회고록』에 따르면, 1626년 초부터 국왕참사회에서는 에스파냐와의 평화조약 체결에 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에는 당시 국왕 모후인 마리 드 메디치와 그녀의 입장을 대변하던 재무총관 미셸 드 마리아크(Michel de Marillac)가 리슐리외의

9) 리슐리외와 경건파의 대립에 대해서는 즐고, 「‘속은 자의 날’을 어떻게 볼 것인가? : 프랑스 절대왕정의 문제적 ‘근대성’」, 『프랑스사연구』 25호(2011), pp.29~57; Georges Pagès, “Autour du Grand Orage. Richelieu et Marillac : deux politiques”, in *Revue historique*, n° 179(1937), pp.63~97 참조.

10) 리슐리외의 입각에서부터 북부 이탈리아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Michel Carmona, *Richelieu*(Paris, Fayard, 1983), pp.485~519를 참조.

반(反) 에스파냐 정책에 맞서 합스부르크와의 전쟁의 무용론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궁정 내 경건파의 우두머리였던 마리아크는 국새상서가 된 이후에도 에스파냐와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의 대외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가톨릭 세계의 평화론에 입각한 것이었지만, 나아가 위그노의 반란과 행정개혁이라는 국내문제의 해결과 대외전쟁을 저울질하며 내부적 문제의 해결이 급선무라는 기본적인 시각을 바탕에 두고 있었다. 그는 “고작 한줌의 땅을 스위스인들에게 돌려주려는”<sup>11)</sup> 발텔리나 사태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북부 이탈리아에서 벌어질 에스파냐와의 무력충돌로 인해 “국가에 치명적인 피해”가 야기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전직 재무총관으로서 마리아크는 전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야기될 과도한 지출과 그로인한 재정적 문제, 그리고 이러한 재정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편법들이 야기할 국내적 무질서를 경고했다. 그는 이 전쟁이 불가피하게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전쟁을 위한 비용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이는 국내의 여러 당파들이 기세를 떨칠 기회로 작용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결국 전쟁으로 인해 루이 13세는 “자신의 국가를 지배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지배자”로 군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몇 달 후 국새상서로 임명된 그는 국내 불안을 한층 더 우려하면서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전쟁이고, 결국 전쟁은 국왕의 권위를 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우선 프랑스가 직면한 전쟁의 상황을 우려했다. 프랑스는 결코 위그노의 반란과 에스파냐와의 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확신한 그는 다시 한 번 국내 위그노 반란 세력을 먼저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대외전쟁은 보다 심각한 문제를 수반한다.

11) 마리아크가 했다고 전해지는 이 표현은 리슐리외의 『회고록』에 등장한다. Mémoires du cardinal de Richelieu, éd. S.H.F.(Paris, SHF, 1907-1931), t. V, p.320.

“국왕은 전쟁을 수행하다가 결국 자금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는 결코 적들에게 평화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를 요구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방에서 전쟁을 지속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방에서 자금을 끌어모으고, 세금을 사용하고, 담보도 지불하지 않고, 연금이나 봉급도 지불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도 모자라 결국에 폭력적이고 예외적인 수단에 의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왕이 자금부족으로 항복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sup>12)</sup>

국새상서의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우려는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전쟁 수행을 위해 그는 새로운 관직 창설을 명하는 칙령 반포를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관직을 창설하고 이를 매각하는 것은 국왕의 입장에서는 가장 신속하고 손쉬운 자금동원 방식이었던 것이다.

“작금의 사태로 인해 우리가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피하며 도저히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sup>13)</sup>

반대로 리슐리외는 국왕에게 국제정세에 대한 상황보고를 통해 국왕의 결단을 요청했다. 엄밀히 말해서 리슐리외가 남긴 국정 보고서에는 에스파냐에 대한 주전론이 담겨있지는 않다. 그는 최종적인 결정을 국왕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하지만 리슐리외는 루이 13세의 속내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고, 1629년 만토바 계승전쟁 중 프랑스 정복한 피네롤로의 반환 문제에 대해 국왕에게 다음과 같이 진언했다.

12) Michel de Marillac à Mathieu Molé, Nantes, 22 juillet 1626(Mathieu Molé, Mémoires, t. I. p.324).

13) Michel de Marillac au cardinal de Richelieu, Paris, 15 février 1629. Grillon, IV, pièce 72. Cité par G. Pagès, p.77.

“피네롤로를 반환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소인은 이 정복이 전하에게 최고의 업적이며, 이를 통해 전하가 향후 이탈리아의 주인이자 조정자가 될 수 있다는 것만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전하가 전쟁을 결정한다면, 왕국의 안정과 재정 그리고 모든 국내 문제에 대한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평화를 원하신다면 장차 이탈리아에 대한 어떠한 야심도 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sup>14)</sup>

국내상서 미셸 드 마리아크는 크리스티교 세계의 평화를 강조하면서 에스파냐와의 평화조약 준수를 강력히 주장했다. 신교도의 반란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에스파냐와의 전쟁은 “진정 크리스티교적인 국왕”의 평판을 실추시키는 일로 여겨졌다. 마리아크는 전쟁 대신 국내 행정개혁을 주장하면서 일명 코드 미쇼(Code Mich명)로 불리게 될 법제개혁을 준비했다. 결국 프랑스의 대외정책, 특히 북부 이탈리아를 무대로 벌어진 합스부르크 왕가의 전쟁을 둘러싼 리솔리외와 경건파 사이의 대립은 1630년 10월 이른바 “속은 자의 날”<sup>15)</sup> 사건을 통해 파국으로 치달았다. 1630년 5월 실각하여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모후 마리 드 메디치 역시 해외 망명길에 올랐다. 반대로 루이 13세의 신임을 재확인한 리솔리외는 이후 궁정에서 확고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고 “국가이성”에 입각한 현실정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었다. “속은 자의 날”은 프랑스가 향후 철저한 현실적 이해관계에 입각한 합리적인 국가이성의 정치를 추구하면서 절대왕정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게 된 중요한 전기로 평가된다.<sup>16)</sup> 그렇다면 국왕 모후의 추방이라는

14) Aff. étr., Corr. pol., Turin, to. XI, fol. 413. G. Pagès, “Autour du Grand Orage”, pp.82~83 재인용.

15) “속은 자의 날”에 관해서는 Georges Mongrédien, *10 novembre 1630 La journée des Dupes*, coll. Trente Journées qui ont fait la France(Paris, Gallimard, 1961); 임승휘, 「‘속은 자의 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프랑스 절대왕정의 문제적 ‘근대성’」, pp.32~37.

극단적인 상황을 야기한 이 사건의 진정한 관건은 무엇인가? 궁정 내부의 권력 투쟁이라는 특징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핵심은 프랑스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과 입장, 특히 1620년대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 발텔리나 사태와 만토바 계승전쟁에 대한 두 견해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1624년 이후 이들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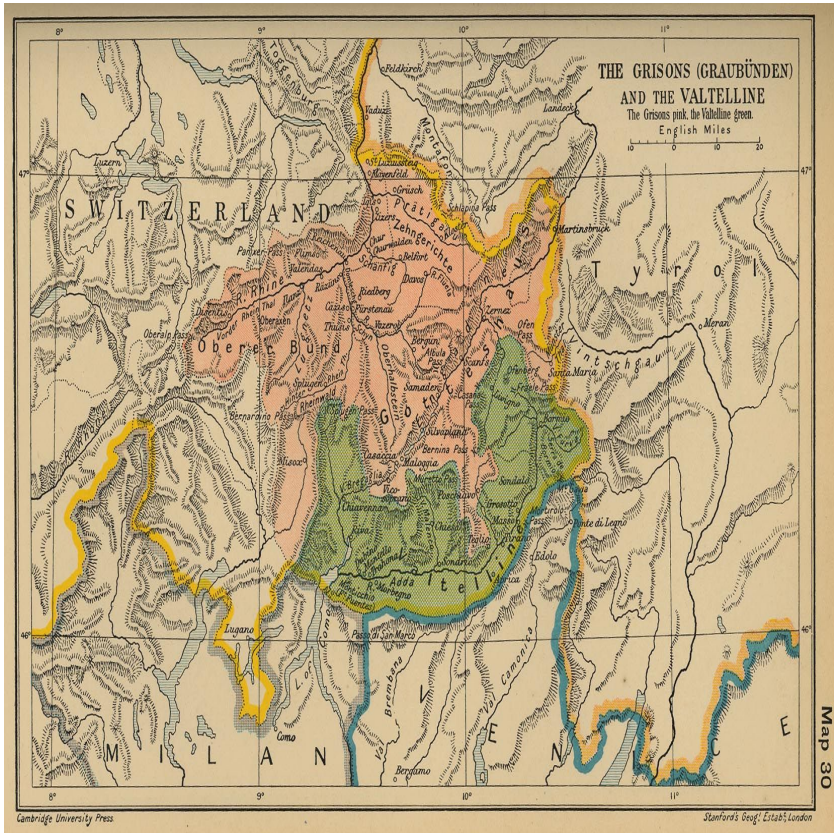
### 3. 그리종 주와 발텔리나 사태

1624년 4월 29일 수석국무대신으로 임명된 리슐리외 추기경은 밀라노 북쪽 발텔리나 지역으로 병력 이동을 명하였다. 사보이 공국과의 사전 동의하에 안니발 데스트레(Annibal d'Estrées) 코브르(Coeuvres)<sup>17)</sup> 장군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는 스위스 동부의 그리종 주를 거쳐 발텔리나로 진군하는 한편, 사보이 공작 카를로 엠마누엘레는 몽페라토를 정복하고 에스파냐의 연합세력인 제노바 공격을 개시했다. 이듬해 밀라노 총독 페리아(Feria) 공작은 베네치아의 외교적 지원을 받으며 반격에 나서 프랑스-사보이 군대를 공격했다. 1626년 3월 프랑스·사보이 vs. 에스파냐·밀라노 사이의 전쟁은 다소 싱겁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프랑스와 에스파냐는 빠른 속도로 화평에 동의하며, 발텔리나에 대한 그리종 주의 종주권을 재확인한 몽중 조약을 체결했다.

16) Etienne Thuau, *Raison d'Etat et pensée politique à l'époque de Richelieu* (Paris, Athènes, 1966), pp.226~232; Françoise Hildesheimer, *Richelieu. Une certaine idée de l'Etat*(Paris, Publisud, 1985), pp.99~111.

17) François Annibal d'Estrées, marquis de Coeuvres(1573-1670). 프랑스 군지휘관이자 외교관. 1626년 사복감(司僕監; maréchal de France) 직에 올랐다.

〈그림 1〉 그리종과 발텔리나



사실 발텔리나에서 발생한 이 전쟁의 발단은 1624년 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 스위스 동남부 끝자락, 험준한 산악지역에 위치한 그리종 주는 지리적으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 인접해있었다. 그리고 그리종과 롬바르디아 북부의 밀라노 공국 사이에 발텔리나가 있었다. 발텔리나는 14세기 이후 밀라노 공국의 영토였지만, 1512년 그리종의 3동맹은 지난한 투쟁 끝에 발텔리나에 대한 중주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1450년 그리종 지역의 10관구동맹(Ligue des Dix-Juridictions)과 신전동맹(Ligue de la Maison-Dieu)의

연합, 그리고 다시 1471년 이 두 동맹과 회색동맹(Ligue Grise)의 연합하면서 이른바 ‘3동맹’<sup>18)</sup> 체제를 구축한 그리종은 1496년 토겐부르크(Toggenburg)가의 단절되면서 발텔리나를 차지한 합스부르크가에 맞서 싸웠고, 칼벤(Calven) 전투와 도르나흐(Dornach)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1512년 3동맹은 발텔리나와 치아베나(Chiavenna)와 보르미오(Bormio) 계곡 등 알프스 남부지역을 정복하고 그들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였다.

1559년 카토캉브레지(Cateau-Cambrésis) 조약<sup>19)</sup>으로 카를 5세의 아들이자 에스파냐 국왕인 펠리페 2세가 밀라노를 지배하게 되면서 발텔리나에는 다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밀라노를 차지하게 된 합스부르크가에게 발텔리나는 그들의 본거지인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를 잇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그리종 주와 발텔리나는 그것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한편으로는 프랑스와 베니스, 다른 한편으로는 오스트리아와 에스파냐 세력의 군사적 각축장이 되었다. 두 세력권은 그리종에게 용병을 요구하거나 자신들의 군대가 이 지역을 통과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때로는 동맹을 제안하고, 때로는 군사행동에 나섰다. 이 시기에 발생한 그리종 주 내부의 당파 분열은 이러한 긴장

18) 중세 말, 특히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 전반까지 이 지역에서는 가톨릭교회의 코이레(Coire) 주교의 지배에 맞서기 위해 1367년 남동부와 중부에서 ‘신전동맹’, 1395년 서부지역 ‘회색동맹’, 그리고 1436년 북부에서 ‘10관구 동맹’(Ligue des Dix-Jurisdictions)이 차례로 형성되었다.

19) 프랑스의 앙리 2세와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사이에 벌어진 이탈리아전쟁(1551~1559)이 종결되면서 체결된 화약. 이 화약에 따라 프랑스는 피에몬테와 사보이를 사보이 공작에게 반환하고 대신 살루초(Saluzzo), 칼레, 메츠, 툴, 베르됭을 보유하게 되었다. 반대로 에스파냐는 프랑쉬콩테(Franche-Comté)만이 아니라 밀라노, 나폴리, 시칠리아, 사르데니아 등 이탈리아 주요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였다. 이탈리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곳은 사보이와 베네치아 공화국뿐이었다. 이탈리아에 대한 에스파냐의 지배권은 18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 이 조약으로 1494년 샤를 8세에 의해 시작된 발루아 왕가와 합스부르크 왕가 사이의 투쟁이 막을 내렸다.

감을 고조시키는데 기여했다.<sup>20)</sup>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종교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그리종 주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발텔레나가 가진 지정학적 입지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1600년 프랑스와 사보이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서였다. 앙리 3세의 암살(1589) 이후, 사보이 공작은 프로방스와 마르세유, 그리고 리옹을 차지하기 위해 프랑스로부터 분리를 시도했다. 사보이와 프랑스의 갈등은 약 9년간 지속되었고, 1597년 에스파냐의 군대가 개입하면서 이 갈등은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했다. 하지만 프랑스와 에스파냐가 1598년 베르벵(Vervins) 조약을 체결하자, 사보이 공작은 살루초(Saluzzo)<sup>21)</sup> 후작령의 획득을 협상하기 위해 파리를 방문하였다. 그는 이 제안에 대한 보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앙리 4세는 살루초를 양보하는 대신 브레스(Bresse)<sup>22)</sup>와 뷔제(Bugey)<sup>23)</sup>를 요구했다. 1600년 앙리 4세는 사보이 공작 카를로 엠마누엘레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사보이를 공격하면서, 모리엔(Maurienne)을 정복하고 몽멜리앙(Montmélián) 시를 포위했다. 공세에 밀린 사보이 공작은 항복을 선언하고 1601년 1월 17일 리옹에서 평화조약에 조인했다. 이 조약에 따라 사보이는 브레스와 뷔제, 쟁크 등을 상실했고, 대신 살루초 후작령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보이는 알프스 서쪽 지방을 상실하면서 전력이 약화되었고, 상베리에서 토리노로 수도를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에스파냐에게 리옹 조약은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했다. 프랑스의 영향력이 확대된 탓에 사보이를 통한 유럽 북부로의 연결로가 더 이상 안전

20) *Dictionnaire historique de la Suisse en linge*,  
<http://www.hls-dhs-dss.ch/textes/f/F7391.php>

21) 1125년부터 1548년까지 피에몬테 지방에 존속했던 도시국가. 1548년 후작 가브리엘레 1세가 폐위되고 프랑스에 합병되었다가, 1601년 사보이의 영토가 되었다. 이 시기 살루초 후작령은 지리적으로 사보이 공국 안에 위치했다.

22) 프랑스 동부 부르고뉴와 프랑슈콩테에 걸쳐 있던 지방.

23) 리옹과 제네바 사이에 위치한 지역. 현재 프랑스의 앵(Ain) 도.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발텔리나는 밀라노와 오스트리아, 나아가 프랑쉬콩테, 네덜란드를 연결해주는 현실적으로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

1603년 그리종의 3동맹은 베니스와의 동맹을 결정하고 이듬해에는 다시 에스파냐 국왕의 지배하에 있던 밀라노 공작령의 동맹 제의를 거부하게 되면서, 상황은 극단적으로 발전하였다. 밀라노의 페드로 데 푸엔테스(Pedro de Fuentes) 총독은 그리종에 대한 상업적 봉쇄령을 내리고 발텔리나 입구에 거대한 요새를 건설하게 하였다. 이러한 에스파냐의 압력은 발텔리나 지역의 내부적 분열을 야기하였다. 1620년에 접어들면서 그리종의 정치적·종교적 분란은 절정에 달했다.

그리종 주의 3동맹(Trois Ligues)이 합스부르크 세력에 맞서 연대했고 발텔리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나 발텔리나와 그리종 주가 하나로 통합되기에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았다. 가장 큰 문제는 종교였다.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그리종과 엔가딘(Engadine)<sup>24</sup> 지역은 개신교를 선택한 반면, 발텔리나는 가톨릭으로 남아 있었다. 그 결과 발텔리나의 가톨릭 영주들과 그리종의 신교도들 사이에 교파간 갈등이 빚어졌다. 발텔리나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에스파냐는 이러한 갈등구도를 그들의 목적을 이해 이용하고자 했다. 페드로 드 톨레도의 후임으로 밀라노 총독에 부임한 페리아(Feria) 공작은 곧바로 그리종에 주목했다. 독일 지역의 종교분쟁과 네덜란드의 독립운동으로 인해 비엔나와 마드리드의 두 합스부르크 세력을 연결하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사보이로부터 프랑쉬콩테로 향하는 군사로가 막힐 경우, 비엔나와 마드리드를 연결하는 데 발텔리나와 그리종이 가장 빠른 직결로를 제공했다.

24) 그리종 주 동부, 인(Inn) 강 상류에 위치한 저지 지역.

이러한 에스파냐의 정책은 가톨릭교의 수호라는 대의명분과 중첩된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페리아 공작은 프로테스탄트 그리종주의 지배를 받지만 가톨릭교도들이 다수인 발텔리나로 진입했다. 그리하여 1618년부터 격화되기 시작한 그리종의 신교파와 발텔리나의 가톨릭 세력간의 대립은 1620년 여름 잔인한 학살극으로 폭발하였다. 에스파냐 군대에 고무된 발텔리나인들은 7월 18일 밤, 티라노(Tirano)를 기점으로 테글리오(Teglio)와 손드리오(Sondrio)로 진군하면서 신교도들을 대량학살한 것이다. 일명 ‘사크로 마첼로’(Sacro Macello) 사건, 즉 성스런 학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약 600여 명의 신교도가 학살당하였고<sup>25)</sup>, 밀라노의 총독 페리아(Feria) 공작은 그리종에 반기를 든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발텔리나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1621년 2월 에스파냐에 대사를 파견하였고, 4월 15일 펠리페 4세와 마드리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서 에스파냐는 그들이 차지했던 지역을 반환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는 프랑스 국왕을 보증인으로 삼고 그리종과 스위스인들의 협약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었고, 해결하기 힘든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었다. 에스파냐의 사주를 받은 스위스 가톨릭교도들은 이 협약에 동의하기를 거부했고, 결국 페리아 공작은 발텔리나에 계속 주둔하기 위한 그럴듯한 명분을 갖게 되었다. 한편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는 티롤 지방을 통해 그리종 주를 공격했다.

1623년 2월 7일 파리에서 프랑스와 사보이, 베니스 간에 발텔리나를 그리종인들에게 반환하기 위한 군사조약이 체결되었다. 에스파냐는 신속하게 움직였고, 에스파냐군의 철수를 약속하며 발텔리나의

25) Collectif, *Nouvelle histoire de la Suisse et des suisses*, t. II(Lausanne, Payot, 1983), p.83.

요새들에 대한 관리를 교황에게 일임하겠다고 제안했다. 프랑스도 망설임 끝에 이 제안에 동의했지만, 이는 로마와 에스파냐의 술책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페리아 공작은 모든 요새를 넘기지 않았고 리파(Ripa)와 치아베나(Chiavenna)에 군대를 계속 주둔시켰다. 한편 교황은 그리종인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거나, 발텔리나가 다른 3동맹과 같은 권리를 지닌 네 번째 세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파리조약은 죽어버린 문서가 되었다.<sup>26)</sup>

1624년 프랑스의 발텔리나 침공 결정은 이러한 군사적·외교적 상황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루이 13세와 수석국무대신이 이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했던 논지는 사실 카를 5세와 프랑수아 1세의 대립 이후 널리 잘 알려진 내용이었다. 리솔리외는 이탈리아 영토와 오스트리아, 나아가 네덜란드를 잇는 연결로로써 발텔리나의 전략적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교황 우르바누스 8세가 지휘하는 교황군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전혀 환상을 품지 않았다. 교황군은 이 지역의 종교적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둔했지만, 롬바르디아 지방에서 티롤 지방으로 이동하는 에스파냐 군사력을 기꺼이 용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솔리외의 의도는 가톨릭 지역인 발텔리나의 종주권을 프로테스탄트인 그리종인들에게 반환하고, 이로써 라인강으로 향하는 에스파냐의 출구를 결정적으로 닫아버리겠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리솔리외가 수석국무대신으로 등용될 무렵 합스부르크의 세력은 최고조에 달했다. 황제는 팔츠(Pfalz)를 붕괴시키고 선제후 자격을 바이에른으로 이전시켰다. 그는 가톨릭 동맹군을 휘하에 두고 독일 북서부를 장악했다. 에스파냐는 네덜란드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이탈리아에서도 에스파냐의 영향력을 막강해서 독립을 유지

26) 1639년 그리종은 에스파냐-밀라노와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발텔리나를 회복하였지만, 이는 발텔리나에서 신교의 금지를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 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은 1648년 베스트팔리아 조약으로 확인되었다.

하고 있던 곳은 베니치아와 사보이뿐이었다. 에스파냐 국왕과 황제의 이해관계는 너무도 얽혀있어서, 양자는 서로를 강력히 지지할 수 밖에 없었다. 에스파냐 없이 황제는 이탈리아에 힘을 발휘할 수 없었고, 황제가 없이는 프랑쉬콩테와 네덜란드의 에스파냐 세력이 위협해질 수 있었다. 에스파냐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는 두 왕국을 연결해주는 안정적인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발텔레나가 그리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다. 그런 점에서 발텔리나는 리슐리외가 강조했듯이 “더할 나위없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1624년 여름 루이 12세는 교황에게 에스파냐의 마드리드 조약 이행에 대한 약속을 요구했다. 교황이 발텔리나를 떠나지 않은 채 프랑스의 요구를 묵살하자 루이 13세는 자신의 동맹세력이 절망에 빠져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서한을 재차 발송하며 군사적 행동을 예고했다. 퀴브르(Coeuvres) 후작의 지휘하에 500의 기병과 3,000의 보병으로 구성된 프랑스 군대는 12월 26일 쿠어(Chur)를 출발하여 발텔리나로 남하하였다. 그리고 차례로 티라노와 손드리오를 정복하고, 에스파냐가 주둔하고 있던 치아베나로 진격하여 이듬해 1월에는 리파(Ripa)를 포위하였다.

리슐리외는 1624년 9월 베네치아와 사보이와의 군사동맹관계를 재확인하였다. 사보이 공작 카를로 엠마누엘레는 밀라노와 나폴리 왕국을 정복하여 루이 13세의 동생인 가스통 도를레앙(Gaston d'Orléans)에게 선사하겠다고 호언했지만, 리슐리외가 원한 것은 에스파냐 군사력을 교란시키려는 것이었다.<sup>27)</sup>

한편 교황 우르바누스 8세는 1625년 2월 사절을 파견하여 프랑스 왕과의 협상을 추진하였다. 교황 사절인 프란체스코 바르베리니<sup>28)</sup>는 발텔리나의 독립과 프랑스의 퇴각을 요구한 반면, 리슐리외는

27) E. Lavisse, *Histoire de France*, p.238.

28) Francesco Barberini(1597 - 1679). 교황 우르바누스 8세의 조카이자 추기경. 1625년에는 교황 특사로 파리에 파견되어 리슐리외와 외교적인 협상을 전담했다.

발텔리나의 종교적 자유는 인정하지만 그리종의 종주권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고,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다. 같은 시기 리슐리외는 앙리 드 로앙(Henri de Rohan)과 수비즈(Soubise) 공작이 일으킨 위그노 반란에 직면했다. 국내와 국외 두 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리슐리외는 1625년 11월 위그노 반란세력과의 협상에 돌입했고, 라로셴의 위그노 반란 세력을 지원하던 영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프랑스 조정 또한 내부적인 분열에 직면했다. 조정 내 가톨릭 당파는 교황사절과의 협상을 기다리는 동안 에스파냐와의 직접적인 해결을 도모했다. 국왕 모후 마리 드 메디치는 마드리드에 파견된 대사에게 에스파냐의 수석국무대신인 올리바레스<sup>29)</sup>와의 협상을 종용했고, 대사 파르지(Fargis)는 리슐리외와 루이 13세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1626년 1월 1일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프랑스가 알프스로 향하는 통로를 확보하고 그리종의 종주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었지만, 조약을 어길 시 이러한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단서를 갖고 있었다. 루이 13세와 리슐리외는 조약의 수용을 거부하고 수정을 요구했다. 5월 2일 몽종 조약이 최종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그리종의 종주권과 알프스 통로에 대한 프랑스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발텔리나에 종교적 자유와 행정관 선출권을 인정하였다.<sup>30)</sup> 그러나 몽종 조약은 그리종의 3동맹은 물론 이저니와 사보이와 베네치아 등 프랑스의 동맹세력 모두 자신들의

29) 가스파르 구즈만, 올리바레스 백작(Gaspar de Guzmán, Count of Olivares). 에스파냐 펠리페 4세의 총애를 받던 올리바레스는 1621년 수석국무대신에 올라 1643년까지 에스파냐의 국정을 책임졌다. Cf. John Elliott, *Richelieu et Olivares* (Paris, PUF, 1991). 만토바 계승전쟁에서 올리바레스의 활동에 대해서는 Roland Mousnier, *Homme Rouge ou la vie du cardinal de Richelieu(1585-1642)* (Paris, Robert Laffont, 1992), pp.355~358 참조.

30) Lucien Bély, Jean Bérenger, André Corvisier, *Guerre et paix dans l'Europe du XVII<sup>e</sup> siècle*(Paris, Sedes, 1991), t. I, p.312.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체결된 조약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 4. 만토바 계승 전쟁(1628~1631)

북부 이탈리아를 둘러싼 분쟁은 몽중 조약으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결코 지속적이지도 결정적인 것도 아니었다. 유럽의 강대국 질서와 이해관계 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 북부 이탈리아는 지정학적으로 여전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강대국들의 긴장관계는 매우 단순한 정치적 사건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면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던 근대적인 의미의 국가의 이해관계는 전근대적인 왕조적 이해관계와 교차하면서, 새로운 양상의 전쟁을 예고했다.

북부 이탈리아에 전운이 다시 감돌기 시작한 것은 몽중 조약이 체결된 지 18개월 후인 1627년 말, 지리적으로 발텔리나 지역 바로 아래에 위치한 만토바(Mantova) 공국에서였다. 공식적으로 신성로마황제의 봉토였던 만토바는 1328년부터 곤자가(Gonzaga) 가문의 남성들에 의해 세습된 유서 깊은 고장이었다. 영토의 3면이 민치오(Mincio) 강에 둘러싸인 만토바 시는 군사적으로 거의 난공불락의 요새였다.<sup>31)</sup> 만토바 공작령은 비옥한 롬바르디아 평원을 가로지르고

31) 역동적인 유대인 공동체를 포함한 이 도시에는 1550년경 대략 4만 명, 1600년경에는 약 3만 1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만토바는 부유하고 융성한 지방이었으며, 그 수도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을 자랑했다. 특히 빈첸조 1세는 문예부흥에 적극적이어서, 만토바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산실이기도 했다. 1627년과 1630년의 흑사병과 공성전은 도시를 황폐화시켜, 1650년 그 인구는 1만 4천 명 수준으로 하락했다. 공작령 전체로 보자면, 그 인구는 1600년경 대략 30만 명에 이르렀다.

있었고, 도시는 직물공업으로 크게 융성했다. 이탈리아의 주요 제후 가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온 곤자가 가문은 1530년 서쪽의 밀라노를 가로질러 약 200km 떨어진 피에몬테 지방의 몽페라토(Monferrato) 후작령을 획득했다.

〈그림 2〉 만토바와 몽페라토



만토바 계승전쟁은 그 이름이 암시하듯 공작령의 합법적인 계승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1612년 9월 22일, 만토바·몽페라토 공작 프란체스코 4세가 3살배기 딸 마리아 곤자가를 남기고 2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만토바는 여성의 승계가 금지된 영지였고, 결국 프란체스코 4세의 어린 형제들인 페르디난도(1612~1626)와 빈첸조 2세(1626~1627)가 차례로 공작령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후사를 보지 못했고, 빈첸조 2세가 1627년 12월 사망하면서 공작령의 계승구도에 위기가 찾아왔다. 공작령의 계승자로 부상한 것은 빈첸조의 당숙인 느베르(Nevers) 공작, 카를로 곤자가(프랑스어로 샤를 곤자그Charles Gonzague)였다.<sup>32)</sup> 곤자가 가문의

32) 카를로 곤자가의 부친인 루이기(Luigi)와 빈첸조 2세의 조부는 형제지간이다. 루

분가 출신이지만 계승 서열상 빈첸조 2세 다음 순위에 있었던 카를로 곤자가는 느베르와 레텔(Rethel) 그리고 마옌느(Mayenne) 공작령의 주인이었으며 프랑스 궁정에서 “외국 왕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빈사상태에 빠진 빈첸조 2세는 사망 직전 느베르 공작을 후계자로 정하고, 자신의 질녀인 마리아 곤자가를 느베르 공작의 아들과 혼인시켰다.

느베르 공작은 1628년 1월 만토바에 당도했고, 자신이 그곳의 주권자임을 선포했다. 프랑스 국왕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던 이력에도 불구하고, 당대인들은 카를로 곤자가의 만토바 계승이 이탈리아 북부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증대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프랑스 왕실의 입장에서 이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었지만, 에스파냐의 펠리페 4세에게는 당혹스런 상황이었다. 기존의 만토바 공작 가문은 16세기 동안 합스부르크 왕가에 우호적이었고 종종 종종 군지휘관이나 관료로서 신성로마제국을 위해 봉사했기에, 친 프랑스적인 느베르 공작의 만토바 계승은 합스부르크 가문이 쥐고 있던 북부 이탈리아의 패권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한편 느베르 공작은 만토바에서 곤자가 가문의 또 다른 인척으로 만토바의 계승권을 주장한 구아스탈라(Guastalla) 공작 페란테(Ferrante)를 상대해야 했다. 그는 공작령의 계승권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당장에 군대를 파견하지는 않은 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페르디난트 2세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사실 황제는 당시 자신의 아내를 내세워 만토바 공작령을 신성로마제국으로 편입시키고자 했기에 곧바로 지원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의 아내 엘레아노르는 만토바의 마지막 3형제의 누이였기에, 황제의 입장에서 구아스탈라 공작의 야심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유용한 도구로 여겨졌다. 비엔나에서

---

이기는 1550년경 프랑스로 귀화했고, 1566년 느베르와 레텔의 공작의 딸과 혼인했다.

구아스탈라는 느베르 공작의 계승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만토바는 공식적으로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봉토였기에 공작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황제의 서임을 필요로 했다. 황제 페르디난트 2세는 카를로 곤자가의 서임을 거부했고 1628년 3월 20일 만토바 공작령의 압류를 명했다. 이에 느베르 공작은 프랑스의 지원을 요청했고, 단순한 공작령 계승문제는 1628년부터 부르봉과 합스부르크, 두 왕가 사이의 새로운 갈등으로 비화했다.<sup>33)</sup>

다른 한편, 느베르 공작의 계승은 몽페라토에 눈독을 들이던 사보이 공작 카를로 엠마누엘레 1세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느베르 공작과 혼인한 마리아 곤자가의 외조부이기도 한 카를로 엠마누엘레 1세는 곤자가 영토의 일부인 몽페라토 공작령에 대한 딸의 계승권을 주장했다. 몽페라토는 만토바와 달리 아들이 아닌 딸에게도 상속이 가능한 영지였기 때문이다. 카를로 엠마누엘레는 신속하게 움직였고, 먼저 프랑스와의 동맹관계를 파기하고 에스파냐와 몽페라토의 분할과 카잘레(Casale) 양도를 약속한 후 침공을 개시하였다. 에스파냐는 곧바로 밀라노의 병력을 몽페라토로 이동시켰고, 전략적 요충지인 카잘레(Casale)를 포위하였다.<sup>34)</sup>

북부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이러한 상황에 대해 프랑스는 신중하게 반응했다. 당시 루이 13세와 리슐리외는 대서양 연안의 항구도시 라로셴(La Rochelle)에서 발생한 위그노 반란과 이에 개입한 영국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루이 13세는 느베르 공작에게 사병의 동원을 인가하는 동시에 베네치아와 마드리드와의 외교를 통해 느베르 공작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33) François Bluche, *Dictionnaire du Grand Siècle*(Paris, Fayard, 1990), p.959.

34) 이 시기의 전쟁이 흔히 그렇듯이, 만토바와 몽페라토를 침공한 외국의 군대는 또 다른 불청객을 초대했다. 바로 페스트였다. 1629년부터 2년간 공작령의 인구는 1/3가량 감소하였다. 알레산드로 만조니(Alessandro Manzoni, 1785~1873)의 소설 『약혼자들』은 이탈리아 북부의 사회적 고립과 재앙을 극적으로 묘사했다.

선에서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했다. 그러나 사보이 공작과 에스파냐가 몽페라토로 군대를 진군시키고 카잘레를 공격하자, 루이 13세는 국내 문제를 잠시 미루고 1629년 2월 카잘레 지원하기 위한 군사 개입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만토바 사태는 일약 유럽적인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루이 13세는 군대를 직접 지휘하기를 원했고, 한겨울의 알프스 행군을 감행했다. 그는 3,000의 기병, 23,000의 보병을 세 부대로 나누어 피에몬테로 진군시켰다. 동시에 조정 또한 인근의 그르노블(Grenoble)로 이동했다. 2월 28일 전위부대는 제네바 인근에 당도했다. 바송피에르(Bassompierre) 장군이 이끄는 프랑스 군은 국경을 넘으면서 3,000명의 사보이와 밀라노 병사들을 물리치고 이들이 지키고 있는 수세(Suse) 협로<sup>35)</sup>를 통과했다. 사보이 공작은 수세 협로를 프랑스에 양도하고 몽페라토에 대한 야심을 포기했다. 그리고 3월 16일 프랑스군은 카잘레에 당도하여 에스파냐의 포위를 풀고, 30일에는 다시 피네롤로(Pinerolo) 요새를 점령하였다.

프랑스의 이러한 군사행동에 맞서 황제 페르디난트 2세는 콜랄토 백작 람볼도(Rombaldo, comte de Collalto)<sup>36)</sup>가 이끄는 용병대를 이탈리아로 파병하여 그리종과 발텔리나를 공격하게 하였다. 동시에 그는 밀라노 총독을 스피놀라 후작(Ambrogio, marques di Spinola)<sup>37)</sup>으로 대체하였다. 1629년 9월 에스파냐군과 황제군은

35)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옛 경계선에 위치한 알프스 지역의 협로.

36) 베네치아의 오랜 귀족 가문 출신으로 만토바에서 태어난 콜랄토 백작(1575~1630)은 베니스에서 추방된 후, 황제군을 위해 봉사했다. 로마와 마드리드에서 교황 사절과 킬리 장군의 휘하에서 활약한 후, 야전사령관에 임명되어 만토바 계승전쟁에서 느베르 공작과의 전투를 지휘했다.

37) 암브로기오 스피놀라(Ambrogio Spinola Doria, 1st Marquis of the Balbases; 1569~1630). 에스파냐 장군으로 활동한 제노아의 귀족인 스피놀라는 당대뿐 아니라 에스파냐 역사에서도 최고의 명장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Cf. Cust, Sir Edward, *Lives of the warriors of the Thirty Years' War. Warriors of the 17th century*, vol.I(London, J. Murray, 1865).

각각 만토바와 몽페라토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에스파냐군을 이끄는 스피놀라(Spinola)는 카잘레를 공격했고, 콜랄토는 만토바 공작령을 점령했다. 12월 느베르 공작은 만토바 시를 지키며 지루한 공성전을 견뎌내고 있었다. 만토바 시의 공성전은 이 전쟁에서 가장 비극적인 에피소드로 기억된다. 1629년 12월에 한 차례, 그리고 다시 1630년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공성전 기간 동안 도시는 폐스트로 인해 주민의 1/4을 잃었다. 결국 7월 18일 황제군의 공격 앞에 만토바 시는 항복했고, 약탈과 학살을 감내해야 했고, 느베르 공작 일가는 페라라(Ferrara)로 피신했다.

프랑스는 퀴브르 장군의 부대를 급히 파병했지만, 만토바 시의 약탈과 함께 전세는 에스파냐와 황제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황제의 군사적 성공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구스타브 아돌프의 30년 전쟁 개입으로 인해 포메라니아(Pomerania)를 침공한 스웨덴 군대를 상대하는 것이 페르디난트 2세에게 더 시급한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황제는 프랑스와의 화평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1630년 10월 13일 조세프 신부와 니콜라 브뤼라르 드 실리리(Nicholas Brûlart de Sillery)를 포함한 프랑스 대표단과 라티스본느(Ratisbonne) 평화조약이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이전의 조약들만큼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조약은 일면 프랑스에 유리하게 작성된 것처럼 보였다. 프랑스는 그리종주에 수비대를 주둔시킬 권리를 갖게 되면서 이탈리아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느베르 공작의 만토바 공작 서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이 조약은 에스파냐에 너무도 불리한 것으로 보였기에, 에스파냐의 재상 올리바레스(Olivares)는 이를 항복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루이 13세는 이 조약을 수용하기를 거부했는데, 이는 향후 프랑스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를 적대시하는 동맹을 체결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만토바 공작령의 계승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북부 이탈리아의 국제분쟁은 교황청의 개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교황 우르바누스 8세는 전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북부 이탈리아의 평화를 간절한 열망을 선포하면서 교황의 칙사를 파견했다. 28세의 젊은 교황사절 쥘 마자랭은 1630년 10월 26일 카잘레 성벽을 사이에 두고 대치중인 양국의 전투를 중단시키면서 이탈리아의 평화를 가져온 인물로 전유럽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는 놀라운 수완을 발휘하며 프랑스와 에스파냐 사이를 중재했고, 그 결과 이듬해 4월 체라스코<sup>38)</sup> 조약이 체결되었다.

체라스코 조약은 사보이와 구아스탈라 모두에게 영토 보상을 약속하긴 했지만, 느베르의 공작령 상속을 승인했다. 카잘레는 만토바 공작에게 반환되었고<sup>39)</sup>, 루이 13세는 이탈리아로 향하는 관문인 피네렐로를 획득했다. 이는 프랑스의 외교적·군사적 승리로 평가된다. 그러나 프랑스의 성공과 에스파냐의 억울함은 1635년 두 세력 간의 공개적인 전쟁의 재개를 위한 길을 열어주었다.

## 5. 나오며

17세기 프랑스사에서 그리중(Grisons)-발텔리나(Valtellina) 사태(1624~27)와 만토바(Mantova) 계승전쟁은 영토적 야심과 종교적 갈등, 그리고 왕조의 이해관계로 얼룩진 근대 초 유럽의 국제정세의

38)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방, 토리노 남동부에 위치한 소도시.

39) 1707년 합스부르크 왕가는 에스파냐 왕위계승전쟁(1701~1714)에서 프랑스를 도왔다는 이유로 마지막 곧자가 공작인 페르디난도 카를로(Ferdinando Carlo) (1652~1708; ruled 1665~1708)를 유배형에 처하고 공작령을 오스트리아에 합병했다.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 북부에서 물러난 후, 1866년 만토바는 이탈리아 왕국에 합병되었다.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지역적으로 북부 이탈리아, 특히 발텔리나는 프랑스와 합스부르크 제국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보여주는 태풍의 눈이었다.

이 사건은 17세기 유럽이 경험한 최대 규모의 전쟁인 30년 전쟁에서 프랑스가 취할 정치적 입장을 예고하는 사건인 동시에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대외정책의 향배를 둘러싸고 벌어질 대규모 논쟁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사의 시각에서 이 사건은 종교적·왕조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던 17세기 초 유럽의 정세 속에서 외교와 전쟁이 클라우제비츠가 지적한 대로 궁극적으로 정치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 특히 리슐리외의 국가이성 정치는 국제정세의 여러 변수들을 능동적으로 이용하면서 최선의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중·발텔리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보이 공작과 영국왕, 네덜란드의 나사우 모리스 등은 프랑스가 국내 위그노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종결짓고, 에스파냐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희망했다. 심지어 그들은 프랑스의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영국은 1625년 말 버킹검 공작을 파견하여 루이 13세로 하여금 영국과 네덜란드 덴마크와의 연합을 중용했다. 영국인들에게 리슐리외는 국내 신교도 반란을 해결하기 전에는 에스파냐와의 전쟁에 나설 수 없다고 대답했고, 이에 영국은 프랑스가 국내문제에서 해방되어야 에스파냐에 대한 영·프 공동전선이 수립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반란을 지원하고 있던 프랑스 신교도에게 양보를 중용했다. 반대로 파르지와 의 평화 협상에 나섰던 올리바레스 역시 프랑스와 영국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프랑스의 위그노 반란을 해상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에스파냐에 맞서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올리바레스는 발텔리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프랑스가 발텔리나 사태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연계 되면, 프랑스는 다시 국내 신교도 반란 문제에 집중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영국과의 관계 개선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다.<sup>40)</sup>

그러나 1626년 5월 몽종 조약,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체결된 위그노 반란세력과의 협정이 공표되자, 에스파냐와 영국 모두는 자신들이 프랑스 정부의 외교술에 놀아났음을 깨달았다. 리슐리외 스스로도 프랑스의 외교적 승리를 자찬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기지로 우리는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 [국내의] 신교도는 에스파냐와의 평화가 두려워, 에스파냐는 신교도와의 평화가 두려워 우리의 평화를 받아들인 것이다.”<sup>41)</sup> 수석국무대신 재직 초기에 리슐리외는 일련의 영리한 조약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부담감을 덜면서 프랑스가 당면한 국내외 문제를 외교적 수완을 훌륭히 해결한 셈이다.

발텔리나 사태와 만토바 계승전쟁은 신구교간의 갈등, 특정 가문의 영토적 야심과 같은 전통적인 - 또는 ‘전근대적’인 - 전쟁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쟁은 국지적인 종교전쟁이나 봉건 제후들 간의 봉건적 영토분쟁에서 그치지 않고 전유럽적 성격의 전쟁으로 발전했다. 이는 17세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국가간 체제와 유럽 왕조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중첩되는 ‘근대적인’ 국가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과 종교적 대의명분을 분리시킨 루이 13세의 프랑스와 리슐리외가 추구한 국가이성의 정치는 유럽의 전통적인 왕조 전쟁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고투고일: 2014. 4. 1, 심사수정일: 2014. 5. 14, 게재확정일: 2014. 5. 20)

주제어 : 부르봉, 합스부르크, 리슐리외, 올리바레스, 그리종, 발텔리나, 만토바, 느베르 공작, 사보이 공작

40) E. Lavissee, *Histoire de France*, Tome XI, ii, p.256.

41) E. Lavissee, *Histoire de France*, Tome XI, ii, p.247 재인용.

&lt;ABSTRACT&gt;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Europe in 1620's and the  
status in northern part of Italy  
- Grisons Affairs and War of Mantova Succession -

Lim, Seung-hwi

In the 1620s, France and the Habsbourg fought fiercely for the supremacy of the northern Italy, especially in the Grisons-Valtellina area and the duchy of Mantova-Monferrato. The animosity and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se two powers were not completely new at that time. But these wars could hardly be explained as an extension of the traditional animosity of 16th century. Beyond the pre-modern dynastic war seeking territorial expansion, they strongly revealed a kind of political modernity pursuing a rational state interest and proper strategy. These wars broken out when the fiscal-military states of France and Spain were in formation appear as a part of a series of conflict inter-states. But at the same time, they revealed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politics and diplomacy in the application of war as instrument.

I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considers the nature of European international relation in 1620~1630's and the sinew of the political conflict inside the French royal court, in which the warfare in Valtellina and Mantova, between Bourbon's France and Habsbourg's Spain, formed a nucleus. So this study has the explanation of the nature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se wars as purpose. In terms of political history, these wars cut by multiple dynastic and religious interests would be an excellent example of Clausewitz's thesis of war as an instrument of politics. The Richelieu's political stance and his Reason of state

demonstrate how to use multiple interests and warfare as instrument to realize the best profit for the state.

Key Words : Bourbons, Habsbourg, Richelieu, Olivares, Grisons, Valtellina, Mantova, Duke of Nevers, Duke of Savoy